

▶ 가족·아동

아동학대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최 정 미*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강사)

우 희 정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본 연구는 아동의 심리적·행동적 부적응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동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아동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을 살펴보고, 아동학대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아동학대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요인임을 밝혀냄으로써 예방차원에서 아동들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5, 6학년 264명과 중학교 1, 2학년 278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검사도구는 신영화(1986), 최윤라(1989), 연진영(1992), 김영숙(1988)의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를 재구성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Cronbach's α , 분산분석과 t검정,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아동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아동학대는 성별의 경우 방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연령의 경우 언어적 학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은 성별의 경우 퇴행행동과 강박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연령의 경우 과잉행동과 강박행동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대한 아동학대의 영향을 살펴보면, 언어적 학대는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모든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임은 위축행동, 과잉행동, 퇴행행동에 그리고 신체적 학대는 과잉행동과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학대는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모든 요인에 영향력 있는 변인임이 밝혀졌으며 아울러 아동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부모들을 대상으로 습관적으로 자녀에게 학대를 하는 성향을 바꿀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